

감하여 가용재원을 산출하는데, 가용재원은 다시 자체사업재원과 신규투자가용재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셋째, 재정분석지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가용재원율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가용재원으로서 자체사업비와 예비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재정분석지표상의 가용재원 산출내역이 상이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에서 산정한 가용재원을 투융자심사 의뢰시에는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가용재원 산정방식은 예산과목 구조가 다르고 회계별 재원조달 및 투자지출 용도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산정하고 있어서 가용재원 판단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 투자가용재원의 산출에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가용재원의 범위는 전체 세입재원에서 경상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수요를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하고, 경상적 필수경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초점이 있다. 그리고 가용재원의 판단은 각 회계별로 재원구성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회계별로 가용재원을 산출하도록 한다.

나. 실질적 투자가용재원 분석 틀의 설정

실질적 투자가용재원을 파악하는 의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능력과 투자가능한 재원의 범위와 수준을 판단하여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적 경비 및 특정경비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용재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개발수요 또는 추가적인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재원의 조달규모와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이는 현행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채승인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신규투자재정여력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질적 투자가용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자치단체가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즉, 자치단체의 지출항목중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 유형에 속하는 경비는 경상적 필수경비로 보고 일반회계에서 이들 경상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해당 자치단체가 새로운 신규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라 보는 것이다.

실질적 투자가용재원의 산출을 현행 세출예산서의 형식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세세항의 분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첫째,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들 수 있다. 이는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에 속하는 경비로서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는 경상적인 필